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관악회 2024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윤솔하(22동양), 이상민(20공예), 온서진(22조소), 안규준(23동양), 박서진(23서양) 학생 등 5명이다. 이날 장학금을 수상한 윤솔하 학생은 "미술대학의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것 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는데 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있을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

번에 받게 될 장학금은 하고 싶은 공부와 작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겠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서진 학생은 "우선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 장학금은 저에게 앞으로의 더 나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저의 무궁한 정진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이 환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안규준 학생은 "동양학과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역할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서진 학생은 "서양학과 학생회장이 되어 학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미술대학 학생들이 뜻 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움을 주시는 미대 동창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는 서울대총동창회에 미술대학 특장학금을 기탁해 매년 2회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학기부터는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대학생회와 각과의 회장, 부회장에게 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회소식

S-아트페스타 2024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S-아트페스타 2024'가 오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전관에서 개최된다. S-아트페스타는 작품판매전 'S-아트페어'와 모교 졸업전시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 '베리타스미술상전', 그리고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등 3개 전시로 구성된다. 또한 개막일에는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S-아트페어 2024

'S-아트페어'는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이 개최하는 작품판매전으로 전시수익금은 장학기금 및 창작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베리타스미술상전 2024

'베리타스미술상전'은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이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후배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미술상이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유지원(19동양), 권민주(19서양), 고수정(19조소), 배인규(17공예), 윤은서(17공예), 나희연(18디자인), 박소영(18디자인) 동문 등이다.

숨은예술가들 2024

'숨은예술가들'은 서울대동문전으로 지난해 프레전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열리게 됐다. 참여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법조인, 정치인, 의료인, 경제인, 교육자,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서울대 동문들이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동문의 경우에는 본회 명예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품활동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전 작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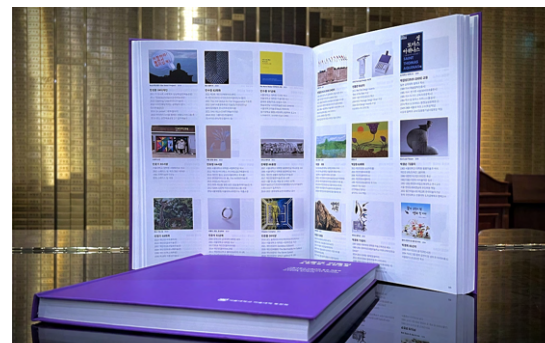
본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병원 내 갤러리 SPACE-U에서 '힐링아트'를 개최한다. 본회는 이번 전시에 참여할 작가의 선정을 회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응모한 회원들의 작품 자료를 검토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실에서 최종선정하였다. 그 결과 김형주(66회화), 강재희(84동양), 임현하(석21서양) 동문 등 3인이 선정되었다. 3인의 작가는 환우분들과 편안한 정서를 나누고자 하는 전시 취지에 맞추어 따듯한 위로가 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힐링아트'는 지난해 전시가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아 병원측 요청으로 올해는 4월과 8월 두 번 개최하게 된다.



충주미술여행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눈·온천·크루즈-충주 미술여행'을 충주일원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속초미술여행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미술여행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35명이 함께 했는데, 특별히 동문 외에도 동문가족과 재학생도 참가했다. 여행일정은 도담삼봉과 단양팔경의 낭만 가득한 충주호 크루즈, 청풍문화재단지 관람, 탄금호 일렉트릭유람선에서의 야경감상, 왕의 온천 수안보에서 온천욕 힐링, 문경새재 옛길 걷기, 오픈세트장 관람, 청운각 및 문경도자박물관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단양 더덕마늘구이, 충주 우렁된장쌈과 묵은지찌개, 문경새재 오미자고추장석쇠구이 등 각 지역 맛집 투어도 함께 했다. 특히 미술여행인 만큼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사동 갤러리PAL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에는 지난해 속초미술여행 참가자들도 함께 하게 된다.(3월호에 특집게재)

'서울대미술인' 회원할인 연장



본회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에는 46학년 원로동문부터 23년도 신입동문까지 시각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음악 등 모든 분야의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됐다. 본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록의 회원할인기간을 도록 소진시까지 연장해 구매신청을 받는다. 단 평생회비 또는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할인가매가 가능하다.

- 구매신청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 회원할인 : 5만원(정가 15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남가주동창회 신년모임

서울대미대 남가주동문회(회장 이원식)의 신년모임이 지난 1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S-빌리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문전 등 여러 안건을 토의하고 선임이사를 선출했으며 이원식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어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타주에서 이사 온 동문 및 처음 참석한 동문 등과 담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천동창회 김선학 회장 취임



본회 부회장 김선학(83공예) 동문이 지난 1월 31일 재결성된 재인천 서울대미대동창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동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인천 서울대 미대 동문전을 재개하고, 인천의 미술 역량을 드높이는데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 쏟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김동문은 인수닷컴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우현문갤러리와 우현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한중문화협회 상하이 지부 및 인천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인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회에는 안재기(63조소) 작가, 최병국(77회화) 前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활동 중이다.

모교소식



제78회 학위수여식 개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정의철)은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8회 202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2024 새내기배움터 개최

모교 학생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4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를 개최했다. 이번 새터는 2박 3일 일정의 '숙박 새터'로 기획됐다. 지난해는 새터준비위원회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새터도 당일치기로 치러졌다.



올해는 확대된 행사 규모만큼 새터준비위원회 규모도 커져, 18명(▲사진)의 재학생이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새터준비위원회에는 모교 5개 학과 학생이 모두 소속되어 다양한 의견과 도움이 오갈 수 있었다. 본회는 이번 새터에, 마샬 엠버튼 2 블루투스 스피커, 애플워치 SE 2세대, 피코4 올인원 VR 헤드셋 등의 경품을 지원했다(▲사진).

윤솔하 학생회장은 "작년에 코로나의 여파 및 학생회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새터를 당일치기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학생회장이 되어 공약으로 세웠던 숙박 새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소과 담론회 활동 아카이브: 만들기와 모이기

모교 동아리 '조소과 담론회'에서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한 책 '조소과 담론회 활동 아카이브: 만들기와 모이기'를 출판한다. 책은 지난 2월 14일까지 진행된 펀딩/구매 신청에서 주문된 부수에 맞춰 인쇄된다. 조소과 담론회는 미술에서 각종 매체와 이론을 경유하며 배움을 도모하는 토론 모임으로, 주로 모교 조소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10월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만나 구성원들의 작업관을 나누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토론 등을 진행했다. '조소과 담론회 활동 아카이브: 만들기와 모이기'는 조소과 담론회의 활동 보고서이자 이어북이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 총 16개 프로그램에 대한 글과 사진, 조소과 교수 6인의 인터뷰, 그리고 지난 학교생활을 추억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조소과 담론회는 "예술 담론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 내자는 공통된 이념으로 모인 이들이 오늘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3년, 5년 후에 돌아볼 때 든든한 응원과 연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묶어냈다"고 프로젝트 기획 의도를 밝혔다.

우석갤러리 전시



'옷 뒤집기' 윤예지(16서양)와 백승환(석22서양)

윤예지, 백승환 전시 '옷 뒤집기'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렸다. 두 작가는 사진, 인쇄 매체가 지닌 제약 또는 작동 방식에 기인한 작업을 구상한다. 뒤집어진 옷에는 감춰졌던 실밥과 실오라기들이 보이고, 입는 사람의 체취가 묻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뒤집힌 옷이라도 여전히 원래의 형태와 질량을 유지한다. 두 작가는 매체의 틀 안에서 매체를 새로이 활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입은 옷을 뒤집어보는 일과 닮았다고 말한다.



'보는 아픔' 이지(김서현 18동양)

이지 개인전 '보는 아픔'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열렸다. 작가는 사람의 가지 절단으로 아픈 도시의 나무를 그린다. 전시의 제목 '보는 아픔'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아픔을 본다'는 의미이자, '다른 존재의 아픔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작품을 통해 나무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을 감상자에게 제공한다.

2월 정년퇴임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소과 이용덕(77조소) 교수



'틀이 없거나 경계가 예술'을 지향하려는 작가정신으로부터 비롯된 독창적인 '역상조각'이라는 장르를 개척하여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예술종합대학에서 조소 전공으로 마이스터쉴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작품은 독일 베를린 슐뮤지엄을 비롯한 세계 주요 미술관과 전시장에서 전시되었다. 1988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슐 뮤지움, 중국 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19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1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11년 김세중 조각상, 2016년에는 문신미술상 본상을 받았다. 2001년 모교 조소과에 부임했으며 모교 학장을 역임했다.

서양화과 심철웅(78회화) 교수



1990년대 중반부터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미디어 아트 1세대 작가다. 1996년 '서울미디어 연구회'를 설립 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98년 한국영상학회가 출범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 모교 서양화과에 부임했으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한국영상학회 회장으로의 시절을 보냈다. 여러 기획전과 학회 활동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미디어아트의 초창기 토대 구축 및 발전에 기여했다. 20여 회의 개인전과 유수한 국내외 단체전에서 작품을 발표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근래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로 역사적 진실성의 부재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심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전을 개최했다.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19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1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11년 김세중 조각상, 2016년에는 문신미술상 본상을 받았다. 2001년 모교 조소과에 부임했으며 모교 학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미디어 아트 1세대 작가다. 1996년 '서울미디어 연구회'를 설립 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98년 한국영상학회가 출범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 모교 서양화과에 부임했으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한국영상학회 회장으로의 시절을 보냈다. 여러 기획전과 학회 활동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미디어아트의 초창기 토대 구축 및 발전에 기여했다. 20여 회의 개인전과 유수한 국내외 단체전에서 작품을 발표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근래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로 역사적 진실성의 부재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심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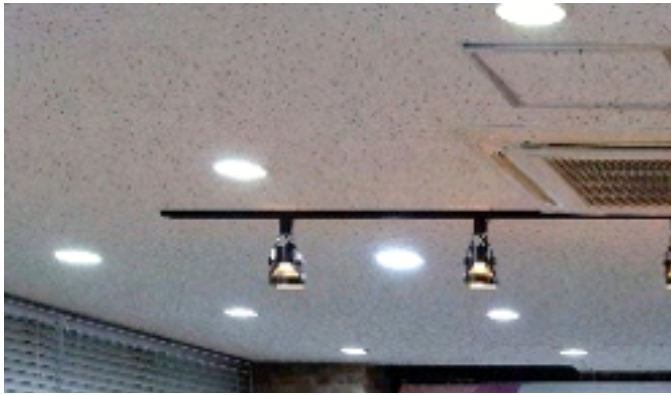
서울대소식



서울대-시카고대-도쿄대 공동연구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지난 1월 1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카고대, 도쿄대와 양자과학 및 공학분야에서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양자컴퓨터 선도 기업인 IBM 및 한미일 4개 대학(연세대, 시카고대, 도쿄대, 게이오대)과 함께 양자분야 공동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서울대는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바탕으로 올해 중으로 시카고대, 도쿄대와 공동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2월 신설한 '서울대학교 양자연구단'을 통해 양자분야 선도 대학과의 구체적인 공동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 네번째 행사가 지난해 12월 4일 관악학생생활관 920동 사랑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관악학생생활관 그리고 LnL'로, 관악 캠퍼스에서의 기숙사 생활

및 시범사업 중인 거주형 대학 LnL(Living & Learning)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준비됐다. 관악학생생활관은 현재 학부생 및 대학원생 5,0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대규모·다문화 생활공동체다. 이번 온더라운지에는 생활관 소속 학생, 조교, 직원 등 많은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이전 회차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방송동아리 SUB가 학생지원과와 협력해 행사를 꾸렸다. 이날 질의응답이 이뤄진 주제로는 기숙사 생활과 시설, LnL 시범 사업 등이 있었다. 기숙사 생활과 시설에 관해서는 호실 위생 문제, 야외 벽돌 계단의 야간 안전 문제, 기숙사 구관의 노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LnL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확대된 LnL 사업 규모에 맞는 교육 환경, 공간적 환경이 지원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유총장은 대학 캠퍼스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천체투영관 관허 코스모스홀 공개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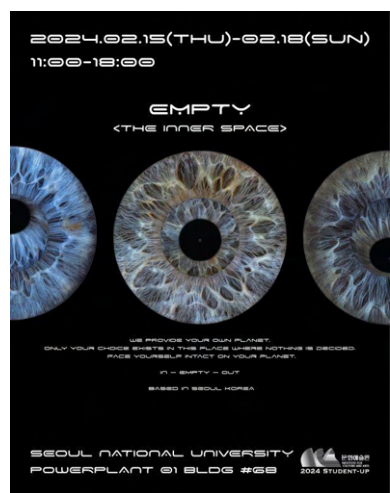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이하 천문학전공)이 지난해 12월 16일 자연과학대학 대형강의동(28동) 관허 코스모스홀에서 '블랙홀, 어떻게 관측하지?'를 주제로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본 공개행사는 천문학전공의 대학 연구성과 사회 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에게 천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3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1부에는 '블랙홀, 어떻게 관측하지?'라는 제목의 강연이, 2부에는 천체투영관 관람이 이뤄졌다. 강연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천체투영관 관람 시간에는 강연에서 다뤘던 블랙홀 외에도 태양계 행성과 다양한 별자리를 돔스크린에 띄워 관람했다. 매년 진행되는 천문학전공의 공개행사 자료와 일정은 천문학전공 사회환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ALTERNATIVE, 생성형 AI로 상상한 관악구의 3가지의 미래



관악구를 무대로 상상한 AI의 미래 모습을 그린 전시 'ALTERNATIVE, 생성형 AI로 상상한 관악구의 3가지의 미래'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제1파워플랜트(68동)에서 진행됐다. 본 전시는 영상작업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23년 2학기 응용공학설계 수업 연계 전시로, 신수현 연구조교수(공학연구원)의 지도 아래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 이번에 전시된 세 작품은 서울대와 관계가 깊은 관악구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서 AI 기술로 인해 바뀔 미래를 상상했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소개팅,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AI로 생성한 '부캐'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상 등 다채로운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져 관객의 흥미를 이끌었다. 문화예술원은 앞으로도 캠퍼스 내에서 다방면의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원 'EMPTY: THE INNER SPACE'



문화예술원 주최 전시 'EMPTY: THE INNER SPACE'가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68동 제1파워플랜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홍채 정밀 촬영과 아이 트래킹 및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기술 융합 전시로, 홍채 정밀 촬영을 통해 파악한 홍채 형태를 기반으로 관객 개인만의 홍채 행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상영하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 전시이다. 외부로부터 정의되는 자아와 내부로부터 정립되는 자아 그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본연의 자신을 망각하곤 한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견고화된 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지구를 떠나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강한 고유성을 지닌 홍채 형태의 행성에서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 어떠한 개념과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행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며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



서울대미술관 소장품전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장품전 '살에서 건진 아름다움의 지분'이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 전관에서 개최된다. 미술관의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 성과까지 소장품 목록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소장품 목록은 또한 미술관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상황, 비전과 연관된 고도의 학술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미술품 컬렉션은 그 미술관이 예술적(미적) 가치, 사료로서의 가치, 공동체적 가치가 뛰어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또렷하게 보여준다고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설명한다.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깊고 향기롭고 고유한 안목을 먼저 경작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은 지성을 자처하는 집단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아름다움에 대한 깊고 향기로운 인식인가에 대한 서울대학교미술관의 사유를 이번 소장품전에서 엿볼 수 있다.

총동창회소식



관악회, 3년 연속 장학금 기부액 40억 원 달성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3년 연속 장학금 기부액 4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41명의 동문이 총 40억 3,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익명의 한 동문은 장학금 2억원을 쾌척했다. 올해로 10여년째 총 8억여 원을 기부한 동문이다. 김익모(AIP23기) 동문은 1억원을 기부해 특지장학회를 신설했고, 김흥기(61농학) 동문은 첫 기부로 1억원을 보내왔다. 신풍제약 창업주 故 장용택(55약학) 동문의 유지를 잇고자 설립된 호월송암재단은 1,500만원을 기부하며 기존에 2억 1,0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된 장용택 특지에 보탬을 주었다. 지금까지 5,800여 만원을 기부하며 아시아 유학생을 지원해 온 이병훈(81경영) 동문이 1,2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새해 첫 달엔 특지 및 결연 장학금 기부자들이 추가 기부하며 장학금 확충에 앞장섰다.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1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170여 동문 및 재학생이 함께한 이날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2024년에 서울대 동문의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오찬 행사로 열린 신년인사회엔 김종섭 회장 외에 고문 7인과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총동창회장추대위원장,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단대·지방지부·직능지부·특별과정 동창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인사들도 행사에 함께했다. 김종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신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복 받을 일을 했는지 자문자답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음악회, 골프대회 등 동창회가 앞장서서 좋은 나눔 행사를 많이 개발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군산 다문화 SNU사회공헌단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군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문과 함께하는 군산 SNU공헌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다문화 SNU 공헌단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총동창회는 이번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지원했고, 재학생 멘토와 별도로 총동창회 동문 단원 3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번 군산 프로그램은 관악구·경북 경주에서 펼쳐온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다문화 공헌 활동을 전라권역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아주고자 기획되었다. 서울대 재학생 22명과 군산대 단원 7명이 함께 만든 프로그램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0여 명이 참가했다. 16일 개회식에는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김동규 사무차장이 참석해 공헌단 단원들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인생 로드맵 설계에서 멘토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었고, 학과 체험부스에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동문 단원으로 참여한 문정매 서울국제학원 원장은 "졸업 후 늘 모교에 부채 의식을 느꼈는데 금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3월 조찬포럼

- 일 시 : 3월 14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주 제 : 최근의 북한 실상과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납부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3월조찬)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 일 시 : 3월 29일(금)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소공동)
- 참가범위 : 사전 신청 동문 500명 이내(총동창회 회비 납부자에 한함)
- 참가신청: 3월 8일(금)까지 사전신청
[이름,학과,입학연도,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납부
문자 1599-7704, 이메일 member@snu.or.kr
- 참 가 비 : 5만원
- 참가비 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성함, 학과, 입학연도 표기
- 문 의 : 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협 찬 금 : 10만원 이상(참가비 계좌와 동일)
- *협찬금 납부 시 정기총회 참가비 면제(참가신청 필수)

4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4월 12일(금) 오전 8시 30분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주 제 : 부여 사비백제 문화탐방
- 답 사 지 :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5만원 (중식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4월국토)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31~2.28)

- 회 장 회비** 권영걸(69응미)
- 부회장 회비** 김창수(82응미) 임영선(79조소) 최진희(83회)
- 이 사 회비** 박덕실(81회화) 박소영(73회화) 박혜령(74회화) 최명애(70회화)
- 일 반 회비** 강명순(59회화) 강신자(76조소) 강재희(84동양) 김 봄(05조소) 김선희(68응미) 김춘이(59응미) 김혜승(85동양) 김홍재(60조소) 김희자(66회화) 박소영(92동양) 윤 슨(95공예) 이영기(86동양) 이은산(68회화) 이은정(79회화) 이종숙(82회화) 정종해(67회화) 정채린(16서양) 조용숙(63회화) 조하늘(19동양) 최병건(87공예) 함미애(81회화) 홍미엽(76회화)
- 평 생 회비** 공강자(62회화)
- 후 원 금** 공강자(62회화) 100만원 대성건축건설 김영범 20만원
- 광고후원금** 안기순(78회화) 20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선희(86응미) 5월 25일 모친별세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세로		세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갤러리탐방

갤러리PAL

압구정동의 조용한 공간 1층과 지하에 자리 잡은 갤러리PAL은 이강화(81서양화) 동문의 부인 이영선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PAL은 본회와 MOU를 맺은 네 번째 갤러리로서 본지 편집팀은 큰 역할을 기대하며 갤러리를 찾아 이영선 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갤러리를 만들게 된 계기와 시점은?

현재 갤러리PAL이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미술학원 건물이라 대표께서 처음부터 갤러리를 염두에 두고 아트센터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동참하게 되었다. 미술학원대표와 이강화(81회화) 교수, 그리고 본인이 함께 갤러리 구상을 하게 되었고, 22년 3월 갤러리PAL을 오픈하였다.

PAL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친구를 뜻 한다.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갤러리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의미는 숫자 8을 뜻한다. 좋아하는 숫자 8을 PAL로 표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8을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가 되기도 한다. 좋은 작가들과 갤러리가 함께 그려 나가는 무한대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예전에 인사동에 있던 인데코 갤러리가 문을 닫으면서 인데코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 350여 점을 본인이 인수 받았고, 그 작품들을 가지고 '보물창고' 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김종학, 장문걸, 방혜자, 윤동천, 윤해남, 이인희 등 많은 모교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갤러리PAL에 소장되어 있다.

이강화 동문과는 어떻게 만났나?



한국에서 잡지 편집장을 하던 중 당시 우리나라에도 출판학과가 생길 것 같아서 프랑스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자 했다. 89년 그 당시 친구들은 하나들 대부분 결혼하였고, 본인은 결혼을 뒤로하고 출판학과의 교수가 되려는 꿈을 안고 파리로 떠났다. 본인보다 6개월 전에 유학 와 있던 이강화 동문을 만나 결혼은 한국에서 신혼여행은 남부프랑스로 다녀왔다. 4년 5개월 동안의 파리에서의 생활은 본인의 진로를 바꿔 놓았다. 출판사 일을 했었기에 전시 팸플릿 만드는 일은 모두 본인 담당이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이전이라 사진을 잘라서 붙이고 활자를 떼서 팸플릿을 만드는 등 남편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창렬, 김인중, 방혜자 동문을 비롯해 백영수, 이배, 이성자 작가 등 많은 작가들과 파리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그들과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전시기획을 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미술계에 어떤 형태로든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진행된 전시 중 기억에 남는 전시나 행사는?

23년 서울대 미대 73학번 동문 전시인 '73+50+미완의 항해'전이 기억에 남는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동문들에게 전시를 통해 만남의 장 역할을 했던 것이 보람이었다. 이 전시에서 show and tell로 각각의 작가들의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작가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미술 비전공자로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잡지사파리 한인 기자로서 디자인이나 색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특히 파리에서의 첫 충격은 다양하고 세련된 색의 세계였다. 색에 대한 전시가 있었는데, 쪼개진 수백 개의 초록색에 충격을 받았다. 5년 가깝게 파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색에 대한 관심이 한국

의 천연염색과 연결되어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다니며 전통자수에 빠져들었다. 단풍이 들면 산을 가장 붉게 물들이는 붉나무를 가지고 염색을 해보기도 하였다. 내가 마음대로 갖고 싶은 색을 만들 수 있는 천연염색을 명장을 찾아 배우고 전시에도 참여하였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를 놓았고, 아이들 고 3 시절 나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몰두했다.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 오히려 특정 학교나 유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까.

앞으로의 전시계획 또는 갤러리 운영계획은?

귀국 후 15년간 MANIF가 주관한 한국구상대전을 지켜보면서 한국구상회화의 전체적 흐름 및 개개인 작가의 화풍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알던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선생님들이 나의 자산이었다. 또한 이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과의 인맥이 화랑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청년 및 중견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를 열어주고 싶다. 예술성 있는 작가 기초가 단단한 작가 중 직접 그리는 작가들에게 역점을 두려고 한다.

또한 갤러리PAL은 바른미술학원과 한 건물을 쓰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 예중, 예고입시를 공부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즉 진정한 예술가를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로 주기별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예중 예고에 입학한 학생들 전시도 하는데 특히 부모나 가족들이 좋아 한다. 특히 미술학원 강사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본회에 바라는 점은?

점점 활성화되길 바란다. 갤러리PAL은 서울대미대동창회와 MOU를 맺고 해마다 동문들의 전시를 1회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그 첫 번째로 3월 26-4월 6일까지 서울대미대동창회에서 24년 2월의 충주미술여행과 23년 9월에 속초 미술여행을 다녀온 동문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갤러리 PAL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우리빌딩 1층

Tel : 010-2217-3210

SNS : https://blog.naver.com/gallery_pal

인사말



제21대 한울회 회장에 선임되어 2024년부터 2년간 미대 여성동문회인 한울회를 이끌어 갈 74학번 서양화 전공 박혜령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2020~21년 동안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하신 정옥란 전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22~23년 코로나 후반기부터 봉사해 주신 이부연 회장님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도 탁월한 추진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은 한울회는 줌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첫 해에는 유튜브 온라인전으로, 이듬해에는 전시장에서 정기전을 열었지만, 인원 제한 등 최소한의 행사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여행스케치 등 외부행사도 중단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에도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행복한 시기에 임기를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끝내고 좀 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대면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임 회장님들처럼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전업작가이지만, 전업작가가 대부분인 회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한울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지내면서 생각해 왔던 요소들을 한울회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한울회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행복한 작가활동을 계속하며 각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에 주목하며 외부로 향하던 사업을 내부로 돌려 더욱 내실

을 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성동문 작가라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한울회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이렇게 한울회 회원인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세 가지를 모토로 삼겠습니다.

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문.
2.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작품세계.
3. 젊어지는 한울회! 젊은 후배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한울회는 즐거운 동행이다!'

선배님들이 다져 놓은 튼튼한 기초 위에 한울회의 본 목적인 선후배 간의 친교와 전시 활동을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며 믿음직하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성동문 작가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더욱 기다립니다. 여성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선대 회장님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임원들, 감사님들, 기간사님들과 함께 하는 회의체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한울회 사업을 함께 의논하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한울회 회원분들 모두가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울회 회장 박혜령



한울회는 지난 12월 7일 뉴브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부회장 박혜령(74회화) 동문을 제2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2년간(2024-2025) 한울회를 이끌어 갈 신임 박회장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7회의 개인전을 예술의전당 갤러리 루벤 등에서 개최했고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140여 회 참가하였다. 2020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충청북도미술대전, 대한민국독도문예대전 외

다수의 심사를 하였고 저서로는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에세이-서교출판사)가 있다. 한국여류수채화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울회 회장, 한국수채화협회 이사,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 자문이며 한국미술협회, 서울카톨릭협회 회원이다. 한편 한울회는 1980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시작으로 2023년 인사동 한국미술관까지 47회에 이르는 정기전을 매년 열어 왔다. 한울회는 49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현재 150여명의 여성 선후배 회원들이 서양화, 한국화, 공예, 도자기, 디자인, 조소, 미디어미술까지, 비구상과 구상미술, 설치미술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1대 신임 박혜령 회장과 함께 2년(2024-2025) 동안 한울회를 위해 일할 임원진은 부회장 안말환(76회화), 사무국장 김은정(81회화), 재무간사 전효순(75응미), 홍보간사 조여주(77회화), 감사 최미영(70응미), 이애자(73응미)이다. 제48회 정기전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후원광고

HANWOOL
ARTISTS
ASSOCIATION

한 울 회
2024년 신입회원 모집
서울미대 여성동문 환영합니다!!

입회문의

rosart@hanmail.net

010-8768-7176(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http://snuhaa.com/home/>

서소문성지 기증전시실 개관 최종태(54조소)

최종태 동문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이 전시되는 상설전시관이 지난 1월 15일 문을 열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는 올해 초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자신의 작품 157점을 기증했다. 기증작품에는 1970년대부터 창작해 온 성모상과 성모자상, 십자가상 등과 함께 인간, 특히 소녀와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 2000년대 이후의 채색 목조각과 회화, 최근의 드로잉 작품 등이 포함됐다. 기증전시실은 박물관 지하 1층 전문도서관과 마주한 공간에 101㎡ 크기로 들어섰다. 기증전시실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영원을 담는 그릇 Vessels of Eternity 최정태 기증작품 전 Chul Jung-tae Donated Works Exhibition 2024. 2. 15. 2000㎡

기증작품 중 30여 점을 소개하는 '영원을 담는 그릇'전이 열렸다. 전시 개막식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등이 참석하였다. 박물관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숭고한 기증 정신을 시민사회와 나누고자 기증전시실을 마련했다"면서 "기증작품은 지속해서 교체 전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최종태는 1970년에 모교 교수로 부임하여 일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다. 또한 가톨릭미술협회 회장, 김종영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장욱진 미술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 임명 곽순화(72응미)

곽순화 동문이 지난 2월 21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곽동문의 임기는 3년이다. 곽동문은 금속공예가로 모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 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K-컬처의 뿌



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K-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동문은 한국공예가회 기획이사, 서울금공예회 회장,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경기도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K-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동문은 한국공예가회 기획이사, 서울금공예회 회장,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경기도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암태소작쟁의 100주년 기념전시관 개관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이 전시관 조성에 참여한 '암태도소작쟁의 100주년 기념전시관'(이하 기념전시관)이 지난 11월 개관했다. 본 기념전시관 조성은 신안군이 추진 중인 '1도(島) 1뮤지엄' 프로젝트의 일부로, 신안군은 서동문에게 전시관 건물 개량을 의뢰했다. 기념전시관은 소작쟁의가 일어났던 마을의 옛 농협창고를 예술로 승화시킨 공간이다. 서동문 특유의 거칠고 묵직한 느낌으로 소작쟁의의 인물, 풍경, 역사, 전쟁, 신화 등을 그려 넣었다. 건물의 옛 모습을 복원한 공간과 높은 층고가 어우러져, 전시관은 100년 전 암태도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승미 행촌미술관장은 "단순히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미를 박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2008년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제직했으며 2001년 독일 함부르크 국제아카데미 초대교수를 지냈다. 또한 2014 이중섭미술상, 200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승미 행촌미술관장은 "단순히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미를 박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2008년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제직했으며 2001년 독일 함부르크 국제아카데미 초대교수를 지냈다. 또한 2014 이중섭미술상, 200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2024 꿈키움합예술캠프 진행 신하순(83동양)

모교 동양화과 교수인 신하순 동문이 지난 2월 13일부터 4일간 충북 단양의 시골 초등학교에서 '2024 꿈키움합예술캠프'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인 단양에서 2022년 20명 미만의 학생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가곡초등학교는 2023년 신동문과 함께하는 꿈키움캠프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했고 2024년에는 31명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동문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 꿈키움아트스쿨, 2013년 서울



특별시미술영재교육 등을 총괄지휘하며 어린이 예술교육에 힘을 실어 왔다. 이번 캠프에서는 음식인문학, 수묵과 채색을 배우보는 한국화프로그램, 서울대규장각, 복합예술동, 미술관 투어 등 짧은 기간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동문 외에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를 비롯한 작가, 기획자 등 9명의 강사진이 33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별시미술영재교육 등을 총괄지휘하며 어린이 예술교육에 힘을 실어 왔다. 이번 캠프에서는 음식인문학, 수묵과 채색을 배우보는 한국화프로그램, 서울대규장각, 복합예술동, 미술관 투어 등 짧은 기간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동문 외에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를 비롯한 작가, 기획자 등 9명의 강사진이 33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리왕비의 인형집 100주년 프로젝트 선정 송해인(97산디)

송해인 동문의 미니어처 책이 지난 1월 영국 원저성 '메리왕비의 인형 집 (Queen Mary's Doll's House) 100주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예술 제본가 송동문은 튀르키예 출신 영국 여성 소설가 엘리프 사팍의 작품을 높이 4.5cm로 제작했다. 인형 집 서재의 600권 장서 중 현대 작품은 송동문의 것을 포함해 21권이다. 이번에 제작된 책들은 원저성에 전시된 뒤 왕실 도서관에 소장된다. 송동문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제본가 중에 한국인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뽑혀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예술제본



은 인쇄된 책이나 낱장의 기록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엮어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한편 송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영국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제본을 시작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15년째 예술 제본가로 활동 중이다. 영국 예술제본 협회에서 약 30명뿐인 펠로우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옥스퍼드대 보들리안 도서관에서 수여하는 예술제본 은상을 받았다.

은 인쇄된 책이나 낱장의 기록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엮어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한편 송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영국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제본을 시작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15년째 예술 제본가로 활동 중이다. 영국 예술제본 협회에서 약 30명뿐인 펠로우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옥스퍼드대 보들리안 도서관에서 수여하는 예술제본 은상을 받았다.

테이트 모던 '현대 커미션' 작가 선정 이미래(08조소)

이미래 동문이 영국 테이트 모던이 개최하는 '현대 커미션'의 2024년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와 테이트미술관 사이 파트너십 일환으로 개최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현대 커미션은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테이트 모던 중심부에 있는 전시 공간인 '터바인 홀(Turbine Hall)'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현대 커미션: 이미래' 전시는 기계 장치를 활용해 유기체나 생물처럼 작동하는 조각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동문이 영국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다. 이동문은 조각의



몸체를 구성하는 부드러운 재료와 이와 결합하는 단단한 구조의 조합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며 관람자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각의 힘에 관심을 두고 예술의 경계를 넓혀 나가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현대 커미션: 이미래' 전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이어진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조소와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몸체를 구성하는 부드러운 재료와 이와 결합하는 단단한 구조의 조합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며 관람자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각의 힘에 관심을 두고 예술의 경계를 넓혀 나가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현대 커미션: 이미래' 전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이어진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조소와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The Greatest Moment 김창열(49회화) . 이우환(56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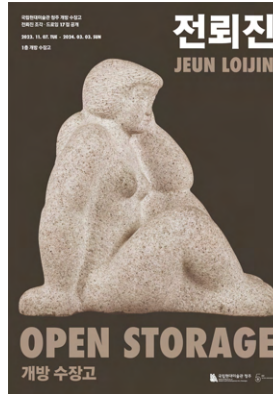
김창열(1929-2021) 동문과 이우환 동문의 컬렉션전시 'The Greatest Moment' 전이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대치동 S2A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두 동문의 작품 중 1960년대부터 근래까지의 주요 작품이 출품됐다. 1960~70년대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혁명을 거쳐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시기로, 당시 예술가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개념이 서구 문화에서 발원한 것을 인지하고 더 깊



이 성찰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서구 문화와 공존하고 교류하여 상상하고자하는 움직임은 미술대학과 미술협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김동문과 이동문은 청년 시절 타국에서 만나 친교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본 전시는 두 거장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로, 이들의 작업 정신이 동시대 미술 현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천을 거듭하고 영향을 끼쳤는지 살피고자 기획되었다고 S2A는 밝혔다.

전뢰진 조각·드로잉 전뢰진(49응미)

전뢰진 동문의 조각·드로잉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개방 수장고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열린다. 전동문은 지난해 개최한 '팝업 수장고' 프로그램에 마련된 관람객 투표 코너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동문의 조각 10점과 드로잉 7점을 개방 수장고에 전면 배치하고,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전동문은 가족과 사랑, 낙원 등 인간애를 담고



있는 돌조각을 만들어 왔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일상에 대한 철저한 긍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문은 1949년 모교에 입학했으나 다음해에 발발한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각과를 졸업하고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한미술협회전 등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하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형과 교수, 김종영 조각상 심사위원장(제3회), 목우회공모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옥경 개인전 최옥경(5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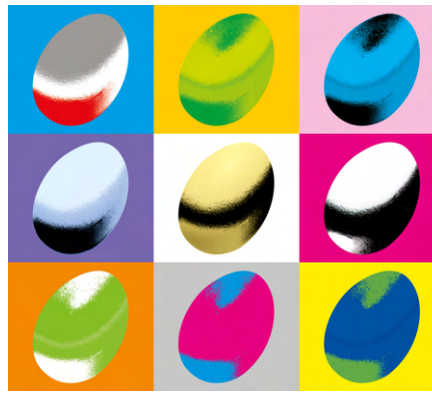
최옥경 동문의 작품들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한옥 공간에서 개최된다.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이번 전시는 작년 8월 부산에서 개최된 최동문의 개인전 '낯설은 얼굴들처럼' 전시작 중 일부 종이 작업과 크로키 인체드로잉을 포함한 총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담한 필치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며 한국 추상회화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최동문은 초기 미국 유학시절 본격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추상문법을 구축했다. 부산 전시의 제목이었던 '낯설은 얼굴들처럼'은 최동문이 1972년 첫번째 미국 체류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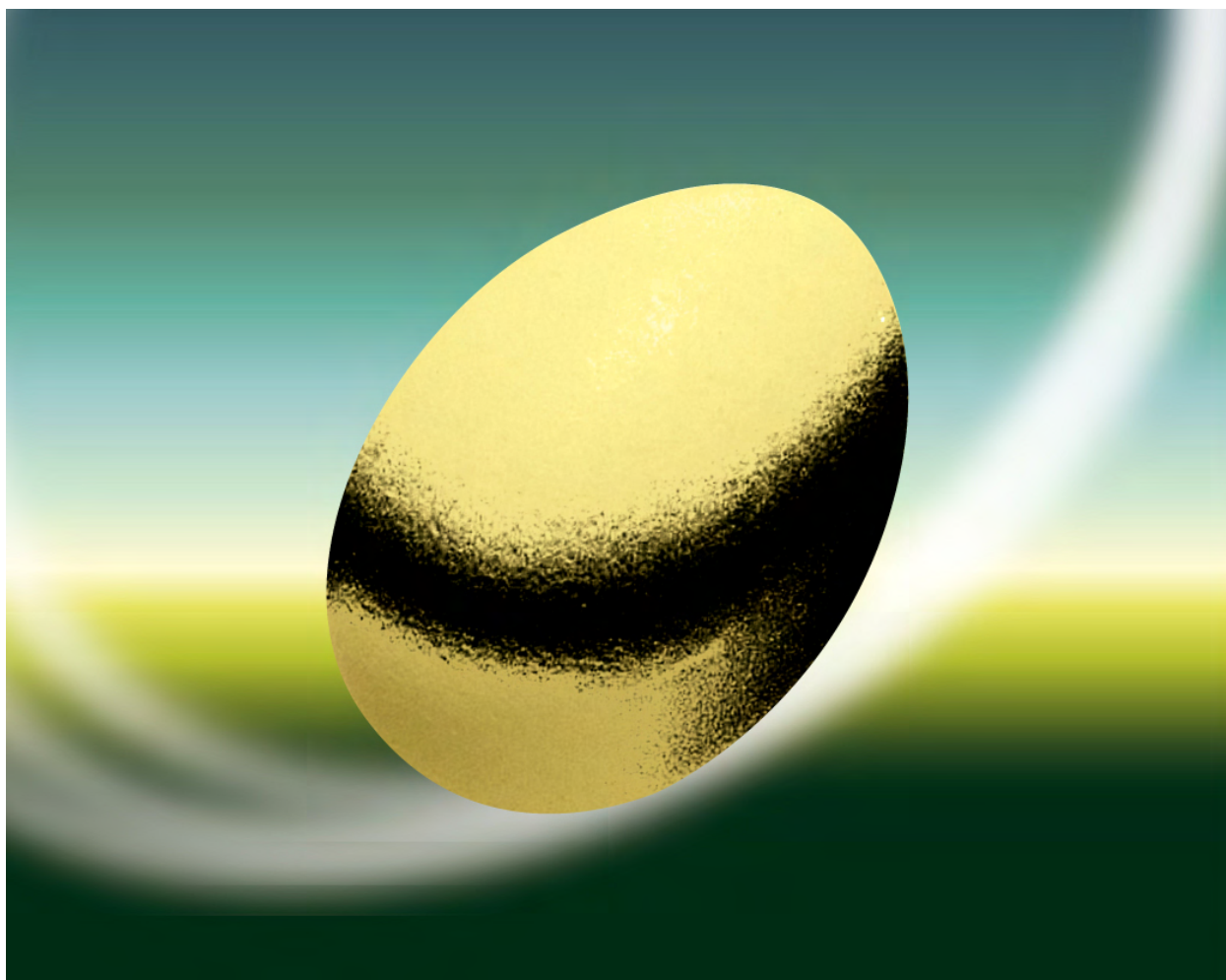
잠시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하던 시기에 출간한 국문 시집의 제목이다. 유학 시절에 쓴 45편의 시와 16점의 삽화로 구성된 이 시집은 작가가 '뿌리를 흔드는 경험'이라 표현했을 만큼 모든 것이 새로웠던 당시의 생경한 환경과 자극을 마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다져가던 과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텍스트 및 이미지의 기록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와 스코히건 스쿨을 졸업하였다.

생명·비상 안기순(78회화)

안기순 동문의 초대전 '생명·비상'이 삼청동 갤러리 원에서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린다. 안동문은 '균형과 생명력의 상징'인 '알(egg)'과 소나무를 소재로 생명과 비상,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이면서 관념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알은 생명체로, 그 생명체는 또 다시 알로 이어지며 영속되는 그 생명력을 영원한 공간인 우주에 담아 생명이 주는 경이로움을 표현한다. 이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생명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우주의 유기적 관계 속에 비상하는 자아를 투사하기도 한다. 소나무 작품은 다채로운 색감의 우주를 소나



무에 투영하여 생명의 찬가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영상작품과 함께 평면작업 약 50여 점이 출품된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예화랑 큐레이터, 대림수산 홍보실장, 세계수퍼모델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미술작가 대상, 경기여고 영매상 등을 수상했다. 광고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아 윤우디앤씨를 설립했으며 현재 윤우디앤씨 대표, 사랑의 교회 아트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AHN KI SOON

갤러리원 초대 안기순 개인전

생명 · 비상

기간: 2024. 3. 27(수)~4.30(화) / 일,월 휴관
 시간: 오전11시~오후5시
 장소: Gallery1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길 1-12 갤러리 1 빌딩)
 문의: 010-4117-1299 / sarah5002@daum.net

후원광고

지도와 영토 김정현(65회화) 외 4인

김정현, 김건희(67회화), 민정기(68회화), 공성훈(83서양), 정재철(83조소) 동문 5인의 전시 '지도와 영토'가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 7점을 중심에 두고 작가 및 유족의 소장품 35점을 더해 총 42점의 작품과 3점의 아카이브로 구성되었다. 회화와 조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을 향해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여정이 집약된 작품들은 마치 현대미술이라는 거대한 영토 위에 다양한 길을 내어 생성한 지도를 상상하게 한다고 경기도미술관은 설명했다. '지도와 영토'는 전시



기획과 연구 행위가 유발하는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의 확장성을 은유한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40일 주기로 열리는 '연구자의 방'에는 참여작가 5인의 작품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와 초청된 연구자들의 글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경기도미술관이 이처럼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연구과정을 가시화하여 전시실에 배치한 것은 작품과 아카이브의 고유성을 흔들고 부수어 재맥락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춤추는 사유: IN A TRANCE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의 전시 '춤추는 사유: IN A TRANCE'가 지난 1월 9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K&L 뮤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77점에 이르는 권동문의 작품을 선보이며 그의 작업 여정과 미술사적 의미를 짚어본다. 대형 회화 신작 '낮선 곳의 일탈자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밈과 짤, 6-70년대 히피, 하드록, 영화 속 인물을 신화, 숲, 철학 소재 등과 결합한 자유와 욕망에 관한 '일탈자들' 작업군, 생명과 실존에 관한 '눈먼자의 숲에서 메두사를 보라' 연작, 90년대 대작 '비논리적 삼각형'과 자아에 관한 주요 구작인 '구토' 연작 등이 이번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 주제인 '춤추는 사유'는 존재를 제한하는 언어적 규정을 넘어 '오염되지 않은 사유의 터'를 향한 권동문의 치열하면서도 초월적인 사유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4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ASIA 국제미술전람회(2014)를 비롯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패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 질서 김홍석(83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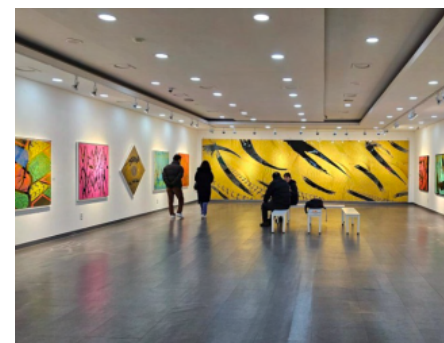
김홍석 동문의 개인전 '실패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 질서'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점(K2, K3)에서 열린다.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형식과 매체의 범주를 넘나들며 사회, 문화, 정치, 예술에서 나타나는 서구의 근대성,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비서구권의 독립적 저항 간에 발생하는 애매모호한 인식의 질서를 비판해온 김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뒤엉킴(entanglement)'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본과 아방가르드의 충돌이라는 이원적



대립이 아닌 '뒤엉킴'을 통해 우리의 인식체계를 바꾸어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가 '미술이 특수하거나 특별하다고 느끼는 감상자의 마음에 균열을 내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현재 상명대학교 무대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LOOK 고완석(84동양)

고완석 동문의 초대 개인전 'LOOK'이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초대전은 'LOOK'을 주제로 보는 행위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탐구한다. 고동문의 회화는 반짝이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캔버스에 한다.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고동문은 이 '바라보기'를 통해 감상자가 참다운 자아를 찾고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과 사회를 이루기를 염원한다.



이번 전시를 개최한 인사아트프라자의 박복신 회장은 고동문의 작품이 "단순히 미술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한편 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시와 개인전에 참여해 왔으며 미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목으로 그린 자연 양창석(85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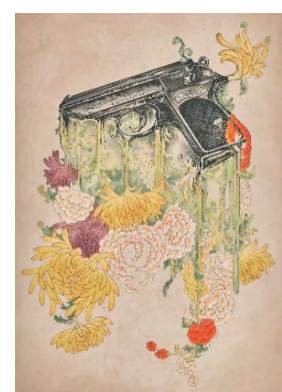
양창석 동문의 개인전 '수목으로 그린 자연'이 인천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양동문은 '현대미술의 흐름과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조형 체계를 지니고' 있는 수목의 정신을 현대에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수목이 "이른바 현대적 가치와 세태로만 미뤄 본다면 응당 도태돼 마땅할 낡고 고루한 양식이겠지만, 오늘날에도 어럽사리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수목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목이 단순한 표현 재료가 아니라 일정한 정신성을 담보로 한 사변적인 것을 자연



이라는 소재를 통해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창구 도든아트하우스 관장은 "현대미술의 격랑 속에서 줄곧 수목 외길을 고집하고 있는 작가의 신념은 이 같은 정신성의 체득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다. 한편 양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예술철학박사를 취득했다. 개인전 18여 회를 개최했으며 모교, 한국교원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했다.

이태원비망록 안성민(91동양)

안성민 동문의 개인전 '이태원비망록'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용산구 아뜰리에키마에서 열렸다. 안동문은 융합과 공존, 다시점, 열린 사고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그에게 이태원은 세계 각지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거지인 뉴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전시는 세상의 접점으로서의 이태원과 그곳 사람들을 위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안동문의 그림에 등장하는 반려견 바닐라와 체리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커다란 모란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회오리치는 모란꽃에서 튀어 날아



오르기도 하고, 관객을 바라보며 황금모란똥을 싸기도 한다. 추억의 바나나 우유에서 나오는 청룡, 오티리 귀리우유에서 나오는 황룡, 마비스 치약에서 불꽃놀이처럼 튀어나오는 모란꽃, 17세기 이탈리아인 액자와 족자에서 흘러나오는 구름물처럼 전시는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메릴랜드 미술대학교(MICA)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Origine: 원시향 채성필(91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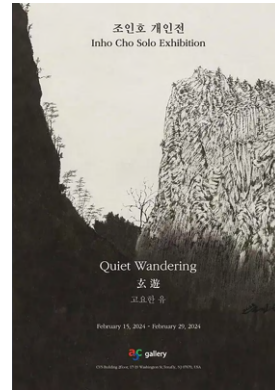
채성필 동문의 전시 'Origine: 원시향'이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광화문 조선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흙과 달', '물의 초상' 등 총 2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채동문은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의 시작점인 흙을 탐구한다. 흙을 매개로 캔버스에 자연의 본질을 그려내, 대자연의 역동적인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해왔다. 작품에서 종이와 캔버스는 나무와 주재료는 흙이며, 흐름의 자국만 남기고 기화된 건 물을 의미한다. 작업에 사용되는 먹물은 불에 탄 나무의 그늘음을 모아 만들어진 불의 상징이며, 화면 바탕에 사용한 진



주에서 온 은분(銀粉)은 금속을 나타낸다. 2003년 도불해 현재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채동문에게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작품 세계의 중심이다. '원시향은 근원의 향기 원시향(原始香)과 멀리서 바라보는 고향 원시향(遠視鄉)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에게 흙은 역사가 깃든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유년시절을 대표하는 물질이다. 한편 채동문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불하여 렌즈 2대학 조형예술학 석사과정 졸업,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요한 유 Quiet Wandering 조인호(96동양)

조인호 동문의 개인전 '고요한 유 Quiet Wandering'이 미국 뉴저지의 ACC 갤러리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다. 조동문의 첫 번째 미국 개인전인 본 전시에는 설악산과 동해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됐다. 조동문은 2007년 첫 번째 개인전 이래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자연에서 거닐고 산을 오르며 답을 찾아 왔다. 그는 자연과 하나 된 순간을 흑백의 화폭 위에 옮긴다. 조동문은 채색 없이 수묵만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수묵 산수화의 전통을 따르



는 동시에 '다시점'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화면을 만들어낸다. 작품 '송지호 해변'과 '권금성'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은 한 장소에 고정되는 대신 조동문의 여정을 따라 흐르며 깊은 인상을 남긴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담아낸다. 이외에도 근경에 강한 먹색을 사용해 여백의미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담은 작품도 이번 전시에 소개됐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Back and Forth 박관택(02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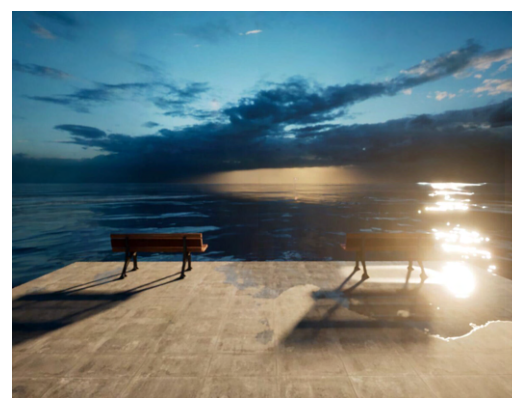
박관택 동문의 개인전 'Back and Forth'가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마포구 씨알컬렉티브에서 열린다. 박동문은 앞선 세대가 구축해 놓은 회화/드로잉의 근본적인 논리 구성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진다. 특히 회화/드로잉에서 항상 소외된 '뒷면'의 존재를 조망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성요소인 평면적인 표면, 지지체의 형태, 안료의 특성, 물성의 조건을 실험한다. 그는 이번 전시의 작품을 만들면서 '1. 사각 프레임일 것 2. 뒷면을 채색할 것 2. 맨 앞에 이미지를 나중에 그릴 것'을 규칙으로 설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이미지-지지체의 물성-주변 환경(벽, 빛 반사되는 색채)라는 3축 구조의 균형을 경유하여 작금의 시대에 평면성의 실험을 시도한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뉴욕의 스크 오브 비주얼아트에서 순수 미술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지금까지 '여백'(2019, 인천아트플랫폼), '페어링'(2021, 인천아트플랫폼) 등의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관객이 직접 전시장에서 체험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찰해 왔다. 현재 모교 서양화과에 재직 중이다.

두 개의 의자_대화_뚝 구름 없는 신기운(03졸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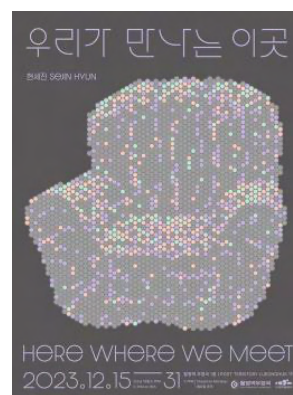
신기운 동문의 개인전 '두 개의 의자_대화_뚝 구름 없는'이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13일까지 울산 남구 복합문화공간 아트필유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영상 작품 6점과 가상과 추억, 시간과 공간 등을 표현하는 영상 스틸컷 이미지 등의 평면작품을 선보였다. 신동문은 평범해 보이도록 만든 가상의 이미지로 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노르웨이 레지던시와 근무지인 영남대학교 인근 등 실제로 본 풍경의 심리적 잔상을 게임엔진으로 구현한다. 그의 작품은 가상현실이 일상에 파고든 현시대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 가상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 그리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을 졸업했다. 그라인더로 물건을 갈아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작업 '진실에 접근하기' 시리즈 등을 통해 존재 가치를 역설해 왔다. 현재 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에 재직 중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곳 현세진(06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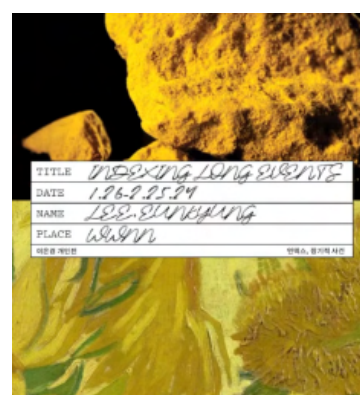
현세진 동문의 개인전 '우리가 만나는 이곳'이 지난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탈영역 우정국에서 개최되었다. 현동문은 이번 전시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처럼 작동하는 말들을 꺼내놓은 전시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모아온 말들은 그에게 변화의 이정표면서 책갈피이다. 이번 전시에서 수집된 말과 관객의 세상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동문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유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본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과, 범주화되지 않는 개별성 사이에서 스스로를 어디쯤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탐색하며, 이름, 가족, 기념일, 국적, 스마트폰, 카탈로그 등 주어지는 것들의 문화적 형식을 전용한다. 한편 현동문은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인디아트홀 공, 오픈박스, AALA 갤러리, FAR Bazaar 등, 한국과 미국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우석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인덱스, 장기적 사건 이은경(08졸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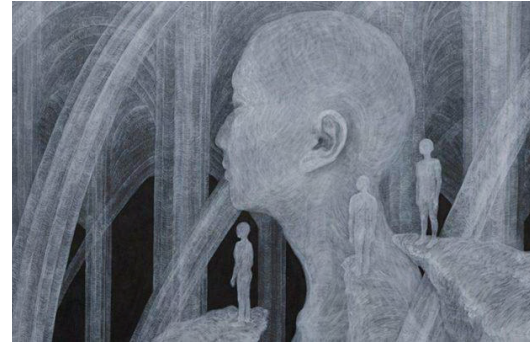
이은경 동문의 전시 '인덱스, 장기적 사건 Indexing Long Events'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종로구 WWNN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사물을 "장기적 사건"으로 바라본다.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에 의하면, 돌처럼 가장 사물다운 것조차도 물리학의 관점에서 그런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건의 집합"일 뿐이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사유는 곧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대한 사유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언어 철학에서 'index(지표)'는 기호가 발생하는 맥락 내에서 일부 요소를 가



리키는 (또는 색인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컨대 '나', '이제', '여기'와 같은 단어는 각각 이야기되고 있는 실제, 단어가 말해지는 순간과 장소를 참조한다. 이동문의 작업은 물감을 무작위로 쌓은 후 긁어낸 틈으로 시대와 시간성을 드러내거나 흙과 광물에 기초한 안료를 지표로 '깊은 시간(deep time)'과 공생의 역사를 가리킴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장기적 사건의 현장들로 이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모교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수중 시야 장주연(12동양)

장주연 동문의 개인전 '수중 시야'가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김포시 CICA 미술관에서 열렸다. 장동문은 전시 서문에서 자신을 스쿠버다이버라고 소개한다. 스쿠버다이버가 보는 수중 풍경은 시간, 날씨, 조류 등 다양한 요인과 물 자체의 굴절률로 인해 희미하고 흐릿하고, 어렵듯하다. 특히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의 스쿠버다이빙은 '신기루처럼 혼란스럽다'고 그는 말한다. "거대한 기둥처럼 보이는 해초, 사람 같은 형태의 바위, 눈앞에 갑자기 등장하는 절벽 등 형태를 확신할 수 없는 풍경 안에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결국 확



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내뿜고 들어쉬는 숨, 내 몸, 그리고 맨살에 스치는 물결의 느낌뿐이다."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풍경과 그 안에서 느끼는 감각을 빌려 삶의 일면을 그린다. 예측한 대로 이뤄지지 않는 삶과 무정한 세상에서 '나는 작고 무기력한 존재지만, 가끔은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체험과 깨달음을 작품에 담아 선보인다.

Sparks 윤미류(석17서양) 외 1인

윤미류 동문과 박현정 작가의 2인전 'Sparks'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한남동 파이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매체와 회화라는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두 작가의 유사한 작업방식과 감각상의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에게 매체와 데이터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존하는 위상에 편집과 연출, 복제와 치환을 통해 시각적 지각을 확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윤동문은 사진을 회화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여 주변에서 포착한 일련의 즉흥적인 조건에 구체적인 "연출"을 개입시킨 이미지를 촬영한다. 그러나 사



진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대응하는 회화를 추구하지 않고, 축적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회화적인 양식을 더 자유롭게 구현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의 맥락에서 눈치 챌 수 없는 이미지, 오로지 단편적이고 자립적인 힘을 갖는 이미지를 시야에 고정시킨다. 한편 윤동문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모교 서양화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Double Weave'(2022, 카다로그,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멧돼지 사냥 빈우혁(석18서양수료)

빈우혁 동문의 개인전 '멧돼지 사냥'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갤러리바톤 한남동 전시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삶의 버거움을 덜어내고 번민으로 점철된 내면을 치유하고자 택한 산책이라는 행위는, 그 횡수가 거듭될수록 자연이라는 대상 자체에 매료되고 자신의 미적 지향점에 순응하는 매체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수면의 일부, 고목 주변의 이끼 등 미시적인 대상을 추상성이 강조된 화려한 색조로 풀어낸 점이 눈에 띈다. 빈



동문은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졸업 후 모교 서양화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OCI미술관(2014), 첩터투(201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는 2021년부터 베를린조형예술가협회(BBK Berlin-Professional Association of Visual Artists Berlin) 멤버로 활동 중이다.

바다가 싱거울 때 선승연(석21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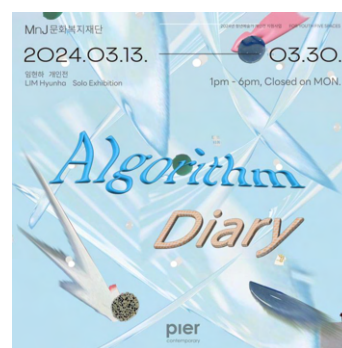
선승연 동문의 개인전 '바다가 싱거울 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무속 신앙(巫俗信仰)이란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조우를 염원하는 토착 신앙이다. 영적 체험 이후,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에 믿음을 가지게 된 선동문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속 신앙의 잔재와 점복,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살피며 신앙의 의미를 복기하고 확장한다. 선동문은 고정관



념이 만연한 사회의 단면들을 직접 비틀거나, 때로는 직관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믿음에 관한 영역을 재단할 합리적 근거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가의 인식은 퍼포먼스와 영상, 조각 등의 형태로 시각화되어 종교에 대한 편견을 비롯한 사회의 통념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불합리한지 강조한다. 동시에 비일상적이고 역동적인 경험을 통해 개방적 시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알고리즘 다이어리 임현하(석21서양)

임현하 동문의 개인전 '알고리즘 다이어리'가 오는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피어 컨템포러리에서 개최된다. 임동문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대의 소셜 미디어에서 무의식적으로 소비되는 디지털 광고 이미지의 영향을 탐구한다. 그는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는 대신 간편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맞춤 광고 이미지를 수집하며, 이를 디지털 콜라주로 조합하여 온라인 알고리즘 플랫폼 환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작가의 작품은 물리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온



라인 이미지의 소비 속도를 느리게 하고, 수공예적 행위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능동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능동적 사고의 감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디어 소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한편, 임동문은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모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갤러리 도스(2021), 아트스페이스류(2023), 온수공간(2023),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2021), CICA미술관(2021)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송지인화보-살꽃이 황규민(석23졸동양)

황규민 동문의 개인전 '송지인화보-살꽃이'가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 창제작프로젝트를 통해 개최되었다. 황동문은 동양화를 비유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 안에 동시대 서화를 입력한다. 그는 가상인물 '황씨'를 만들어 그가 원작을 배울 수 있는 '화보'를 제작한다. 작업의 주요 목적은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황씨가 네번째로 만난 동시대 서화가 송지인의 그림을 보고 제작한 <황씨화보>를 선보이는 전시이다. 송지인은 최근 일상에서 인지적 사각지대에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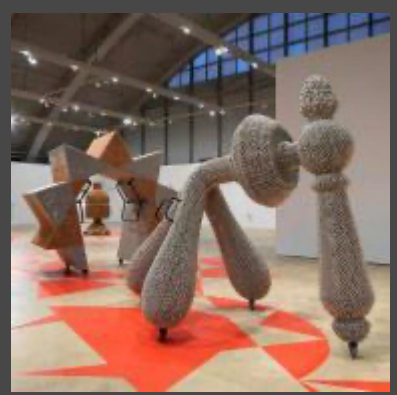


재하는 사건이나 상황, 특정 인간 또는 동식물을 관찰하며 쉽게 인지되지 못하여 관심 대상에 벗어난 소외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이를 수집하여 시각언어로서 제시하는 중이다. 황동문은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화보의 모본'과 '화보 제작'을 이어가고, 이들을 활용한 서화의 새로운 규칙을 찾기 위한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동양화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3월의 전시



지도와 영토
김정현(65회화) 외 4인
23.3.19-24.3.24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1,2



지속 재연
양혜규(90조소)
23.11.24-24.4.7
헬싱키미술관



산, 선 그리고 시
김환기(교원) 외 2인
23.12.22-24.3.17
뮤지엄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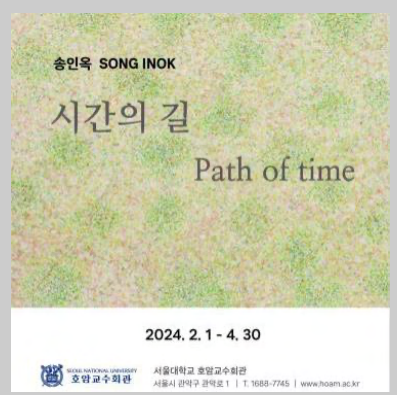
춤추는 사유: In a Trance
권여현(81회화)
1.9-3.17
K&L Museum



피어나: 나의 이야기에 꽃이
최지원(11동양) 외 3인
1.24-3.19
리빗 한남



용 龍用勇
김주호(69회화) 외 3인
1.26-3.24
김중영 미술관



시간의 길
송인옥
2.1-4.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벤엘로 올라가다
변영혜(78회화)
2.1-3.20
갤러리 1



The Greatest Moment
김창열(49회화) 외 1인
2.15-4.24
S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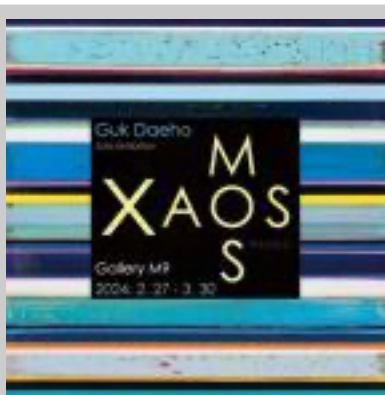
Time Lapse
류노아(76조소) 외 7인
2.15-3.13
페이스 갤러리



Back and Forth
박관택(002서양)
2.22-3.30
씨알컬렉티브



말할 수 없는 것들
서제만(12서양) 외 1인
2.22-3.20
갤러리 기체



카오스모스
국대호(85서양)
2.27-3.30
갤러리 엠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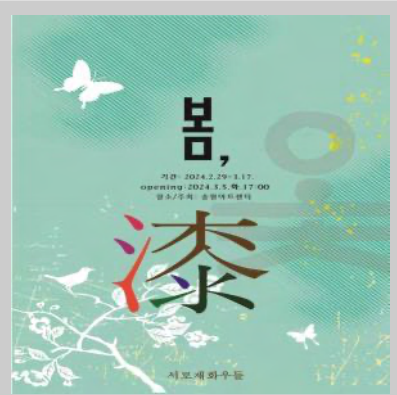
레이스 드로잉-백색산수
이윤성
2.29-3.10
금호미술관



wwemblemeyy
조경린(93서양)
3.1-3.17
413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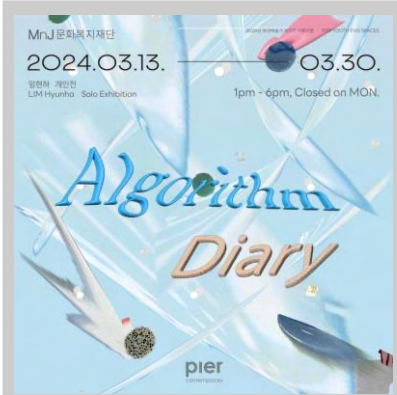
첫인상 데모
우현주(16서양)외 4인
3.2-3.12
스페이스 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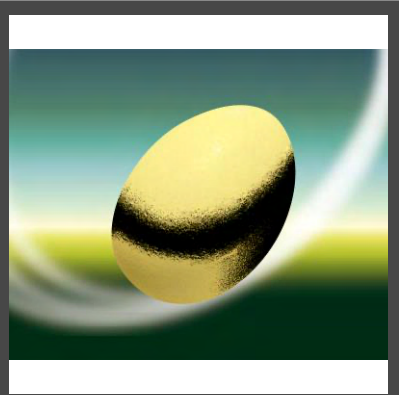
봄,
나성숙(71응미) 외
3.5-3.17
송원아트센터



on Flora and Painting
이창남(85서양)외 9인
3.20-4.9
이화익갤러리



Algorithm Diary
임현하(석21서양)
3.13-3.30
피어컨템포러리



생명. 비상
안기순(78회화)
3.27-4.30
갤러리원